

***캄보디아 미등록 스론씨 상담 및 지원**

아동학대건으로 오랜 시간 상담과 지원활동을 해왔던 베트남 미*씨 어린 두 딸이 다녔던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안타깝게도 지금 두 딸은 집 근처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고 엄마와 분리된 채 어느 그룹홈에서 지낸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캄보디아 미등록 가정인데, 아이 아빠가 부산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법무부 출입국 불법체류자 단속반에 의해 붙잡혀 갔노라고.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목사님께 전화하면 도와주실 것’같아 전화했노라며 아이 엄마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일 때는 불법체류자 단속이 없었는데 이제는 부담이 되는지 요즘은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과 경찰들이 합동으로 집중단속 하는 기간입니다. 이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도 적잖은데, 이번 대구 달성구에서 필리핀 이주민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단속반이 들이닥쳐 필리핀 미등록자 9명을 붙잡아가는, 심각한 ‘이주민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일에 분노하여 교회 소속 이주민단체들이 서울 경찰청과 대구 달성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고, 미등록자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예배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인권침해가 심했던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이주민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이 달성경찰서 서장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이번 일을 저지른 법무부 직원과 경찰들을 대표해서 달성경찰서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 받았습니다.)

아이 엄마와 대강의 상황을 전화로 알아보고 김포시 통진을 마송지역에 있는 아이들 가정집을 방문했더니 3살(마지오), 5살(마리오) 사내 아이 둘과 아이 엄마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어리기도 하고 아빠의 일 때문에 불안해서인지 더 칭얼대고 엄마에게 매달려 상담에 집중하기 어려워 주변에 아이들 잠깐 봐줄 친구 없냐 했더니 급히 어디로 전화를 걸어 스론씨 친구가 금방 나타났고 아이들을 자기집으로 데려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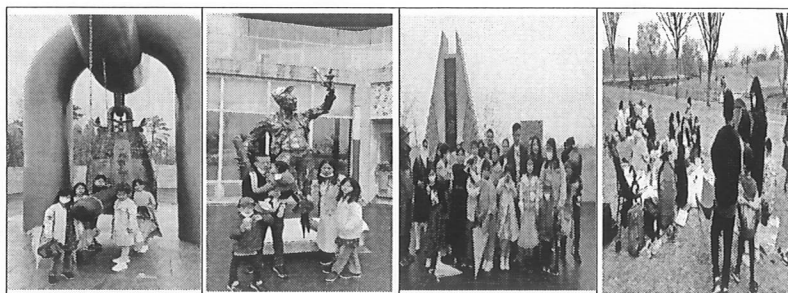
아이들 엄마 스론씨는 2012년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결혼이민자로 2년 남짓 살았는데, 스론씨 표현으로 남편이라는 사람이 매일 술에 일도 하다 말다. (부부문제가 많은 다문화 가정 상담할 때마다 문제 남편들의 삶의 패턴이 어찌면 그리 똑같은지...) 그때는 둘 사이에 아기도 없었고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합의 이혼으로 갈라섰기에 비자 연장을 받지 못해 결국 불법체류자 신분상태에서 2014년에 한국에 일하러 온 현재 남편인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를 만났습니다. 김포에서 아들 둘을 낳았고, 남편도 비자가 2019년 만기여서 결국 이 가정 전부가 미등록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아기 둘을 낳을 때와 키우면서 아이들 아플 때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적잖은 돈을 내야 했던 어려움들을 말할 때는 그 때의 감정들이 깊은 한숨 속에 묻어나오더군요. 스론씨 오빠도 미등록 상태로 부산에서 일하고 있었고 6개월 전에 남편을 부산으로 불러 함께 일하는 중이었는데 단속반이 들이닥쳐 스론씨 남편과 오빠를 포함 10명 정도가 붙잡혀갔다고 합니다. ‘제발 아이들 아빠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어려 자기는 지금 일도 못하는데 아빠없이 어떻게 사냐며’ 울먹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려 육아에 전념해야 했기에 남편 혼자 돈을 벌며 월세 43만원, 어린이집 43만원 제하고 나면 지금까지 4식구가 힘들게 살아왔다고. 아이들 둘 다 한국에서 낳고 한국 음식만 먹을 줄 아는데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가면 아이들 교육 시킬 일도 캄캄하고,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월급이 한국의 10분 1정도 밖에 안된다면서 남편이 설령 캄보디아로 강제 출국되더라도 자신과 아이들은 한국에 계속 남아 돈을 벌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애길 하겠나 그 심정은 알겠으나 괜한 기대감을 심어주기보다는, 미등록자(불법체류자) 남편이 단속반에 붙잡혀 보호소에 가 있으니 풀려나올 길은 없으며 이젠 한국에서 살아갈 계획을 포기하고 아이들 아빠가 캄보디아로 출국할 날짜에 맞춰 한국생활을 정리해서 가족 모두가 캄보디아로 돌아가 새 삶을 살아갈 생각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남편은 현재 출입국 부산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보호 담당관과 통화해 보니 불법체류 기간만큼 적용되는 벌금이 천만 원 이상 되는데, 납부를 하고 출국을 하면 1년이 지나 재입국 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납부를 못하면 강제출국후 다시는 한국에 올 기회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보호소에 있는 동안 가족과는 통화할 기회가 주어지고 교도소의 영치금 비슷한 돈을 가족이 송금해 주면 필요한 것들을 사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필요로 하는 한국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미등록자(불법체류)가 된 이주노동자나 이주가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런 일들을 상담하고 도울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남편의 보호기간이 끝나 가족이 함께 캄보디아로 돌아갈 때까지 어려움에 처한 이 가정을 위해 쌀 등 물품 지원을 하면서, 남편과 아빠와 당분간 떨어져 지내며 앞으로 겪게 될 다가올 미래를 불안해 하며 지내야 하는 이 가정을 위로하고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다고 하니 신앙의 길로도 잘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론씨 가정과 같은, 불안과 아픔을 겪는 미등록 이주가정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미얀마 난민 가정들 봄소풍 다녀왔습니다.**

김포에 있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새 단장을 했다가에 봄소풍을 위한 답사를 했습니다. 애기봉은 한강이 끝나는 김포 끝자락에 있는데 김포와 강화도 섬 너머 물길



로 1킬미터도 채 안떨어진 북한땅을 가장 가까워서 조망할 수 있는 산봉우리입니다. 산수경계가 참으로 아름답게 펼쳐지는 곳인데 안타깝게도 북한땅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 공원 출입하는데 군인들이 얼마나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는지. 같은 지역에 살면서 이런 아름다운 곳을 지나칠 수 없기도 하고, 미얀마가 지금 내전중이고 난민 신분인 분들이라 남북의 대치상황에 대한 온도를 느껴보시라고, 또한 평화에 대한 가치를 다시 일깨우는 시간이 될 것 같아 첫 코스로 들렸습니다. 한주간 내내 맑았던 날씨가 하필 봄소풍 가는 토요일 아침부터 꽤 많은 비가 내려 진행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공원 내부를 다양한 출렁다리로 길을 내었고 평화의 종소리처럼 들리는 꽤나 덩치가 큰 종을 아무나 울릴 수 있어 다양한 사진도 찍으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파주 평화누리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가정별로 싸온 도시락을 함께 나눠먹고 아이들은 놀이기구를 타며 모처럼 신나는 시간을 가졌고, 잔디밭에서 난민 가족들이 삼삼오오 대화의 꽃을 피우며 노동에 시달린 고된 몸을 달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가 저녁 식사는 소풍간 날이 미얀마의 최대명절인 물축제 기간이어서 보통 때보다는 조금 비싼(?) 가성비 좋은 식당(돼지 수육, 가오리무침, 메밀전, 칼국수, 죽)에 가서 맛난 저녁을 대접하였습니다. 도움을 주신 지인들과 교회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도제목**

1.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미얀마의 내전이 그치고 민주화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2. 미얀마 난민분들이 도움 받는 입장에서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미얀마 난민촌을 위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떨어져 사는 가족과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3. 여름 캠프(1박2일)를 강원도 속초에서 설악산과 바다를 경험하는 숙소를 정해 진행해보려 합니다. 자원봉사자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고 진행에 필요한 선교후원도 부족함이 없도록

2023년 5월 3일

작은이의벗 친구교회◆더불어함께 이주민센터 : 이학산목사

(후원계좌 : 농협 150109-51-140298)